교회사회복지실천의 도전과 한계

장진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요약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의 위기에 직면에 있는데, 이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반기독교적 정서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교회다우며, 성경말씀에 기반을 둔 말씀선포와 사회봉사를 병행(Two wings of a Bird)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실의 난관을 헤치는 하나의 돌파구로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의 지역교회(Community Church)가 되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민간자원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실천 방안으로서 한국교회가 관련기관들과 MOU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사회 민간기관의 구심축(Control Tower)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로써 지역주민들이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봉사, 코이노니아)을 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교회사회복지, 기독교 사회복지, 지역교회, 교회 사회복지실천

Ⅰ.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장 멈춤' 또는 '성장 정체'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울 만큼 교회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흔한 이야기로 사회복지 외원시대[1]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운영하던 시설이라는 말을 자주한다. 그 때에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주민들이 교회에 와서 양식을 받기도 하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탕이나 초콜릿을 받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는 선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새겨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인권문제가 제기되면서 기독교(또는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하여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보편화될 정도로 언론에 많은 부조리 사례가 보도되었다(예. 도가니 사건, ㅇㅇ복지원 사건 등).

이러한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잘 드러난 사건은 최근 어느 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기독교인 담임선생님을 교체해 달라는 1인 시위를 청와대와 서울 시내 주요 교통 요지 등에서 함으로써 언론에 자주 노출되었다. 심지어는 일본에까지 이 사건이 보도되었고, 종교

1) 외원(外援, external help)시대란 대체적으로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의 상당부분을 외국원조로 이루어지던 시대를 일컫는 말인데, 대략 전쟁 이후부터 70년대 말까지를 포함한다. 이 시대에는 해외 기독교 민간자원의 도입으로 기독교 아동 및 장애인 시설 및 단체가 많이 설립된 시기이다.

를 강요한 기독교 담임선생에 대한 비방이 인터넷에서 아동의 말에 의구심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이 이어졌다.[2)]

이 사건은 논리적으로나 시위 아동의 인터뷰 등에서 거짓말 또는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아이를 격려하고 지지하였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 기독교인들에게 비춰진 자화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행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을 통하여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며 교회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 또한 1인 시위하는 아동에게 용기 있는 아이라고 격려도 하였으며, 기독교인 담임선생에 대한 진의 여부를 확인도 없이 무조건 기독교인은 나쁘다는 인상을 여과 없이 비판하였다.

Hans Küng(1995)은 교회는 “근본적으로 주어진 각 시대마다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교회의 상이 정립된다.”라고 교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이홍근 역, 1995: 21-22). 이 개념을 한국교회의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지금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교회들마다 지역사회에서의 지역교회(Community Church)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백화점식 교회개척, 예배당 건축, 교회성장 제일주의에서 교회가 이웃과 더불어 소통하며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in transition)에 있다고 본다.

즉 전략적인 전도계획 속에서의 부흥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다정한 좋은 교회로서의 이미지로 지역사회 속의 예수께서 “네 이웃들 네 몸처럼 사랑하라”(마 22:39; 막 12:31)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대사회는 복지재원의 다원화(Welfare in pluralism) 시대이다. 공공재원의 부족과 한계로 인하여 민간자원의 개발과 활성화가 시대적 사명처럼 많은 연구와 협력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교회는 어느 사회적 기업보다도 지역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지난 1백여 년을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계몽하고 조국 해방을 몸소 실천하였으며, 민주의식개혁에도 앞장서왔다.

국민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비영리단체로의 이전한 소득금액 중 종교기부금은 전체 36 퍼센트였으며, 매년 약 1조원의 돈이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헌금한 금액(경기복지재단, 2011)에 대해 교회의 사회봉사(코이노니아)의 부족을 지적한다. 또한 이제 한국사회에서는 노골적인 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공개적인 선교전략으로는 선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교회가 당면한 성장 정체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검토해본 후, 지역사회에서 교회들이 지역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민들과 더불어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교회의 사회복지실천 현황과 문제점

2) 이 시위에 대한 보도는 많은 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되었으나(예. SBS, 궁금한 이야기 Y, 2013. 8. 18; MBN 등 여러 언론 매체), 결국 아이의 말이 거짓말이거나 증거부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2013. 10.).

1. 현황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특히 생활시설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나, 아직도 여전히 지역사회복지에서 교회의 역할은 민간자원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외원시대에서 아동과 장애인 생활시설과 기관[3]의 대다수는 기독교(적)[4]시설이었다. 기독교 시설에서는 선교와 사랑의 실천 현장으로서 또한 신앙심의 표출로서 전후(戰後) 수많은 요보호 대상자들을 보살펴왔다. 지금도 60여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많은 시설들 가운데는 외원시대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5]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현장에서는 종교 시설 및 기관들의 횡령 등 부조리와 인권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문제는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타 종교 역시 이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나, 기독교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이 많다보니 자연스레 언론에 비방적인 기사가 더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 기술된 여러 가지 종교 시설 및 기관들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최근의 경향은 시설 운영주체에 대한 종교적인 언급이나 조사를 지양하고 있어, 과거와는 달리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의 종교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 심지어 교회 내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조차도 교회와의 분리됨을 강조함으로써 무교 또는 타 종교 자녀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대략 1백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부양의무 조건이나 기본보유재산 등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여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노인층에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에 지역교회와 지자체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좋은이웃들 사업 등의 관련 단체와 합력한다면 보다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는 거의 동네마다 설립되어 있는 지역교회와 이렇다 할 연계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교회 중심의 기독교와 지역사회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연계·지원하는 일을 함께 동역한다면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참고. 보건복지부 전국 일제조사 결과, 아래 표 1 참조).

〈표 1〉 2011년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결과(보건복지부)

구 분		계	직권조사	신고조사		
				소계	본인신고	제3자 신고
현황	건	12,135(100%)	4,868(40%)	7,267(60%)	4,101	3,166
	인원	23,669	9,535	14,134	8,365	5,769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1)

3)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적으로 생활시설을 뜻하고, 기관은 이용시설을 지칭한다.
4) 기독교 또는 기독교적 시설(기관)이란 교회나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하였거나, 설립자 또는 운영자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거나 추구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일컬으며, 천주교회는 별도 표시함.
5) 불교 등 타종교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복지포교(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복지관 및 생활시설에도 열심히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다, 현대불교, 2013.10.25.

2. 문제점

(1) 부조리 및 형사적 문제

일부 시설에서는 경제적 부조리(예. 공금횡령 등) 사건으로 인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종교시설 및 기관은 지자체와 시민들 사이에 불신과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되었다. 지방의 한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여러 개의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을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직원 인건비와 수많은 후원금을 횡령하여 연일 중앙과 지방방송에 보도되었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 기독교의 사랑과 헌신의 사회봉사 이미지를 크게 실망시킨 적이 있다.

아래 〈표 2〉는 지난 5년 동안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횡령 등으로 감사원 감사 등에 적발된 사례인데, 연간 약 50억 원 정도의 복지예산이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발생건당 횡령액은 4억6천5백만 원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 등을 구축하여 대대적으로 회계부문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표 2〉 연도별 사회복지 예산 횡령 및 부당지급액(2006-2010)

201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구 분	시설		기관		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06년	8,928	8	-	-	8,928	8
2007년	2,309	7	107	2	2.416	9
2008년	6,135	13	658	4	6,793	17
2009년	716	4	710	2	1,426	6
2010년	3,807	8	1,295	5	5,102	13
계	21,895	40	2,770	13	24,665	53

* 공무원의 횡령 및 과오지급분 제외

* 출처: 김한규, 2012: 21 재편집

(2) 인권 문제

기독교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과 행정기관의 인권의식을 쫓아가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방적인 신앙의 강요와 언어폭력 사건 등으로 또 다시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인권 기준은 성추행 등의 형사·윤리적인 문제는 당연하고, 생활인들에게 시설이나 기관의 특정종교 강요를 절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i.e. 아동의 자기결정권 강조).

예를 들면, 국제아동인권협약에서는 비차별의 원칙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의 원칙에 따라 아동이 종교를 강요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현재 기독교 시설 및 기관에서는 설립 목적인 선교와 인권 문제가 상충되고 있다.

일례로 오랜 전통과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한 기독교 아동시설에서, 시설아동들은 해당 지자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소하여 인권위에서 인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설에서 오랜 기간 아동학대가 있었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설장 교체를 명령하였으나, 해당 법인에서는 시설 폐쇄로 맞서 시설아동인권 문제가 더욱 증폭되는 결과

를 가져왔다. 하지만 해당 법인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선정적이고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예. C 아동시설).

해가 거듭될수록 아동시설에서의 아동인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 대부분 선교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전체 시설 중에 기독교 시설과 기관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분명히 파악되는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281개 전국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이 중심이며 지역아동센터는 미가입)에서 기독교 시설은 전체 64 퍼센트로 과반수이고, 다음으로 무교가 21 퍼센트로 뒤를 이었고, 천주교 12 퍼센트와 불교 등 기타 종교가 3 퍼센트로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가 19세말부터 아동복지에 대한 선교정책에 힘입어 많이 설립되었으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아래 표 3 참조).

〈표 3〉 아동복지시설의 종교별 운영주체

구분	기독교	무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계
개소	180	59	33	6	3	281
%	64	21	12	2	1	100

* 한국아동복지협회 내부자료(2013) 가입시설 기준임

이와 같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기독교 시설이 많다보니,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기독교 시설이 포함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청소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아침(저녁)기도회 및 주일예배 의무참석과 심지어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용돈에서조차 십일조 등 헌금을 강요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 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강제적으로 강요하기 보다는 자율적이고 모범적인 시설 운영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선교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경기도 경우에도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총 178개소를 분석한 결과(2011년), 기독교가 61개소(34%)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 21, 불교 18, 무교가 46개소였다. 그러나 경기도 내에 의료기관은 총 22개가 있는데, 그 중 기독교 4개, 불교 4개, 천주교 14개로 파악되어 시설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많으나, 의료기관에서는 천주교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경기복지재단, 2011: 2, 3).

전국 4천여 개의 지역아동센터 중에 약 절반 정도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센터인데[6], 이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들 가운데에는 48 퍼센트가 미자립교회들로서 교회 개척과 더불어 아동선교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7] 이로 인하여 지자체 공무원들과 이용아동 학부모 그리고 주위에 인권 감수성이 예민한 지역주민들로부터 항의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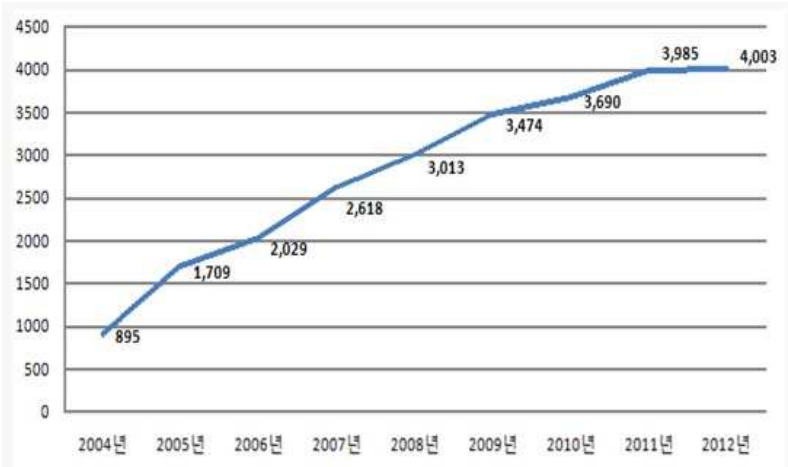
---

6) 전체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약 50 퍼센트 정도라고 봄, CTS 대구방송 인터넷 뉴스, 2009. 7. 20; 목양신문 인터넷판, 209. 7. 21.

7) 이태수 외(2009)의 개신교 운영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중 자립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율은 52 퍼센트 정도였고, 미자립교회는 48 퍼센트였다(이태수 외, 2009: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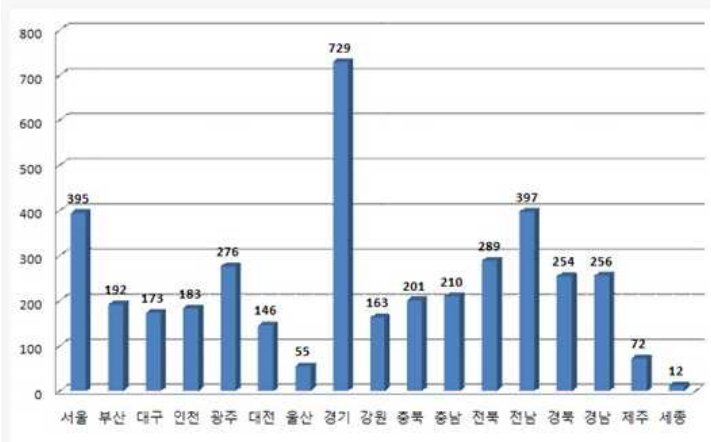
주로 현장에서 지적당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장소를 별도로 설치, 지역아동센터에서 기독교 신앙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내용, 회계 부문을 명확히 하여 교회 재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8)]

아래 [그림 1, 2]는 연도별 지역아동센터의 수를 보여주는데, 2011년 이후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과부의 방과 후 교실 확대 운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종교성이 없는 교과부의 방과 후 교실 운영이 대폭 확대되면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축소되면 지역아동센터 존립을 위한 아동인권문제가 부각되고, 이로써 아동인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출처 : 이태수 외, 2009

[그림 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설립 수



* 출처 : 이태수 외, 2009

[그림 2]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설립 수

8)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이미 다 해결되었을 것이다.

(3) 설립 목적과 사회복지 이해 문제

과거 배고픔에 굶주린 요보호 대상자들을 보호하던 시대에는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어도 그것으로 상당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 시설이나 기관도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이라는 사실, 즉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의 근본정신과 관련 주무부서의 지침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선교 우선 목적으로 설립된 많은 시설과 기관에서는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기독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해당 교회의 출석 교인의 수가 50명 이하가 전체의 약 62퍼센트로 미자립 개척교회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장이 담임 목회자인 경우가 약 77 퍼센트로 이 중 미자립교회의 경우에는 약 80 퍼센트였다(이태수 외, 2009: 5, 6). 이러한 미자립 개척교회의 경우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교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실태조사결과 교회가 돈을 벌려고 한다는 사회적 편견(오해)이 있었다(이태수 외, 2009: 10). 그러나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 목적을 교회 선교 목적과 구분하여 대부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일부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하여 선교(개척)하려고 있다는 비판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다.

위 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역아동센터 설립 목적이 아동들에게 기독교 교육과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지적할 사항은 담임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부족이다. 즉, 취약계층의 지역아동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돌본다는 개념보다는 선교우선 정책으로 신앙교육을 강조하다 보니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의견이 충돌되거나 지역아동센터 평가위원들 간에 잦은 마찰이 있었다.[9] 이에 대하여 많은 미자립 개척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고, 지역사회에서 교회 역할 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교회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수입에 비해 사회복지적 지출이 미미한 정도의 수준의 교회가 많아 위와 같은 지역교회의 역할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발급하는 많은 헌금에 비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매우 적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아래 〈표 4〉는 목회자들에게 교회 총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적 지출이 몇 퍼센트 정도가 바람직한지를 6, 7년 간격으로 물어본 결과이다. 1993년도와 1999년도의 응답에서는 약 평균 7 퍼센트 정도였으나, 2006년도에서는 약 11 퍼센트로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김동배, 2010: 52). 이는 목회자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사회복지적 지출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전체 예산 중 평균 10 퍼센트 이상을 사회복지적 지출로 하였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10]

---

9)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 연구자가 지역아동센터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을 때 직접 겪은 사항이며, 평가회 등에서도 기독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문제점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10) 그러나 2008년도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는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비율은

〈표 4〉 연간 총예산 중 사회봉사비 지출 비율 비교

장로회(1993, N: 2,008)		연구원(1999, N: 410)		총람(2006, N: 680)	
~5%	50.3%	~5%	54.8%	~5%	33.3%
5.1 ~10	24.3	6 ~10	23.8	5.1 ~10	38.1
10.1~20	9.7	11~20	14.5	10.1~15	13.4
20.1 이상	2.5	21 이상	6.9	15.1~20	6.2
(무응답)	13.2			20.1 이상	8.9
합계	100.0%	합계	100%	합계	100%
평균: 약 6%		평균: 약 7%		평균: 약 11%	

*출처: 김동배 (2010), 52

2006년도의 응답자 28.5 퍼센트는 10 퍼센트 이상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중 약 9 퍼센트는 사회복지적 지출예산이 총 예산의 20 퍼센트 초과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즉 교회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아마도 현재 상황에서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점점 더 증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지표이다.

그러나 서울의 K교회 2013년 재정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총 예산액 12억 중 구제비는 30천여 만 원에 불과하여 전체 예산에서 2.5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운영 예산도 일부 사회복지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볼 때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구제 예산은 적은 편이라고 사료된다. 교회가 지역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주민들과 교회가 함께 호흡하며, 지역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지역주민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을 것이다.

Ⅲ. 한국교회의 재도약의 도전과 한계

1. 한국교회의 재도약의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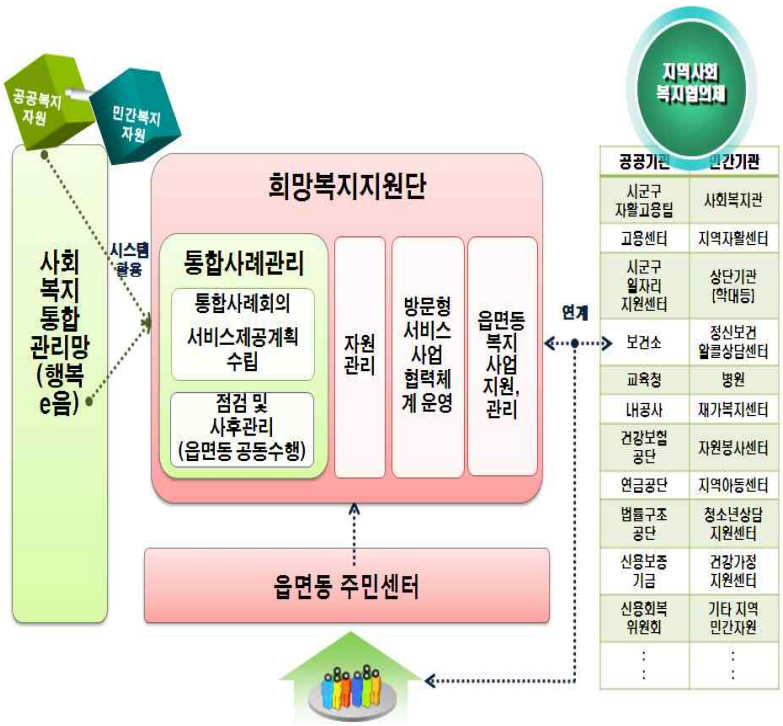
현 정부에서는 복지소외계층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복지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민간자원의 보고(寶庫)라고 본다. 지역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아울러 물적자원 또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무연(無緣)사회라고 본다면, 교회의 성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인적자

4 퍼센트였다, 중앙일보 인터넷판, 2008. 8. 18.

원)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그들에게 사랑과 생계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심리·정서적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동(洞) 복지협의체를 복지사각지대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 적극 설치·운영하고 있다. 동 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에서 민관협력 조직의 최하위 조직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읍·면·동 별로 구성,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아래 그림 3 참조).



[그림 3]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소개

서울시 S 구의 동 복지협의체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동 복지협의체 구성 인원 중 종교계 대표로 36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기독교 30명, 불교 5명, 천주교 1명으로 되어 기독교가 종교계 대표 중 83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아래 표 5 참조). 이와 같은 현상은 교회가 지역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교회가 연합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역에서 교회의 역할과 입지가 높은 지역이다. 기독교 동 복지협의체 위원은 지역교회 목회자들로서 여러 가지 지역복지 증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인적 및 물적자원 연계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표 5〉 서대문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야별 현황

계	위 촉 분 야 별							
	종교계	의료계	금융계	교육계	서비스업	복지분야	행정분야	자원봉사
342	36	33	24	21	59	45	41	74

*출처 : 서울시 S 구의 내부문서, 2013 재편집

이러한 지역교회가 많을수록 기독교가 지역사회에서 신뢰와 좋은 일(봉사, 사회복지)을 많이 하는 교회로 인식이 될 때 비로소 한국교회의 제2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힌다면, 자원봉사자 가운데 지역교회 성도들 또는 목회자들이 많이 신청하여 교회 구역(속회, 목장) 조직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 찾아내고 그들에게 공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민간자원을 교회 구제비,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팀 및 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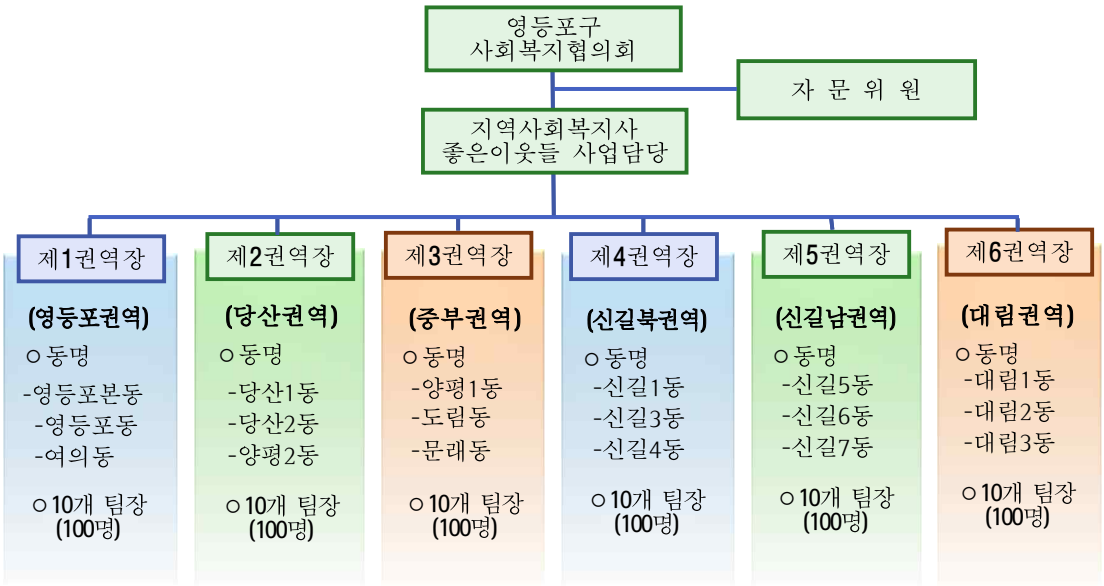
이러한 봉사(사업)하는 일에 지역교회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영국에서는 기독교 중년부인들로 구성된 우애봉사단(Friendly visitors)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들을 방문, 계몽운동을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우애봉사단의 장점을 살려서 교회에서 지자체와 관련 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에 협력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현재 추진 중인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사업인 좋은이웃들 사업은 2011년 4월 모 방송국에서 보도된 '화장실서 사는 삼남매' 사건에서 비롯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에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 국가가 일제점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 주고, "지역의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소외계층 발굴·지원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보완" 하겠다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다(대통령실, 11.6.30; 보건복지부, 11.6.21.).

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예. 비수급 빈곤층 등)들을 찾아내어 수급대상자에게는 그에 맞는 기초생활보장서비스 등 공적자원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수급 대상자에게는 지역사회에서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일이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지역교회에서 다 맡아서 할 수는 없으나, 지역에서 복지소외계층을 찾아내는 자원봉사자를 목회자와 성도들이 구역(속회, 목장)조직을 통하여 지역의 복지단체 자원봉사자들과 연합하여 찾아내고,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민간자원의 일부를 교회에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민간자원 연계를 않는 경우라도 지역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심리·정서적 지원도 정부와 지자체에 큰 힘이 될 것이다(예. 고독사 및 자살예방 효과 등).

아래 [그림 4]는 서울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봉사대원 구성도인데, 권역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시켜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 찾아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킨 것이다. 지역교회에서 정부와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본다면 지역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들에게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지역에서 개교회 중심의 협력활동을 시작하거나 노회(지방회)에서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MOU를 체결한 후 지역 연합적인 활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구상할만하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아픔과 함께 하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 한국교회의 재 부흥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림 4]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봉사대원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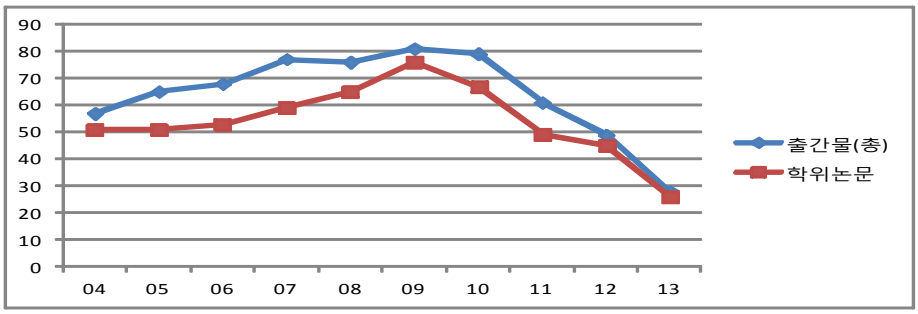
2. 재도약의 한계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거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지역교회의 재정을 늘려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회가 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일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에 사회복지적 목양 마인드 없이는 정확히 답변하기 곤란할 것이다.

도시의 익명성 관계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문도 안 열어주는 세태에서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는 일 또한 쉽지 않아,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의지만으로는 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관심도를 도서출판을 기준으로 국회전자도서관 사이트에서 “기독교 복지” 검색어로 분석해 보면, 총 958건인데 이는 도서, 학위논문, 학술기사, 연속간행물, 인터넷 자료, 전자자료, 비도서 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국회전자도서관, 2013. 10. 24.현재). 아래 [그림 5]는 2004년부터 2013년 10년간 ‘기독교 복지’ 관련 전체 출간물과 학위논문 수를 나타낸 것인데, 전체 출간물과 학위논문은 정방향으로 증가와 축소를 하고 있다. 10년간 관련 출간물 전체 641건 중 약 85 퍼센트인 542건은 석·박사 학위논문이다.

그 수가 2004년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2009년을 정점으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수치로 한국교회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증거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관심과 열의 면에서 약간의 비교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 기독교 복지 관련 전체 출간물 및 학위논문 수('04~'13)

앞의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4학년 초등학생의 거짓말과 상상력으로 지어낸 이야기에 무비판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한 사실을 기억할 때, 한국교회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인 지역사회에서 지역교회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라 본다. 그러므로 위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지역교회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투자(투입)를 통하여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Ⅳ. 나가는 말

잠 11:1에서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한 말씀을 기억하며,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복지실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에서의 주민들의 욕구와 관련기관 간의 협력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째일 것이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말씀(명령)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나 거저 주어라"(마 10: 8b, You received without paying, now give without being paid.)고 한 대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목양의 심정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국교회의 제2의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현대사회의 복지다원화(Welfare Pluralism) 시대에서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민간자원 활용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선제적으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에 다가가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역사회의 민간기관과 지자체가 민간자원을 거버넌스(협치)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회가 이 문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예수 사랑의 실천자로서 어려운 교회의 이웃들, 복지소외계층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한규 (2012). “사회복지시설 및 모금기관의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 박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Kung, H. (1995).『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 분도출판사.

이태수 . 이경림 . 이향란 (2009). “개신교운영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사)기독교한국사회복지회 한국교회봉사단.

김동배 (2010). “한국 기독교 사회봉사의 현황과 과제.” 사)기독교한국사회복지회 협의한국교회봉사단.『한국교회 8·15 대성회 복지포럼집』, 49-65.

손병덕 (2010). “한국 기독교 사회봉사의 미래-디아코니아/이웃사랑과 섬김, 협력.” 사)기독교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봉사단.『한국교회 8·15 대성회 복지포럼집』, 66-82.

Canda, E. R. and Furman, L. D. (2003).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박승희· 이혁구 역.『종교사회복지 실천론』.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3).『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사업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3).『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사업 매뉴얼』.

서울시 서대문구청 내부문서 (2013).

한국아동복지협회 내부문서 (2013).

장진용 (2010).『사회복지시설 투명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진용 (2011). “모금기관의 투명성.”『나눔문화 활성화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진용 (2012).『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동배 (2010). “한국 기독교 사회봉사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회 8·15 대성회 복지포럼집, 49-65.

경기복지재단 (2011).『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현대불교 인터넷판. 2013.10.25. “모든 인연에 간절하자” 나의 서원-나의 만행.

http://www.kcsw.or.kr/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검색일: 2013. 10. 19.)

http://mokyangnews.com/mboard/mboard.asp?board_id=mission&group_name=basic&idx_num=76 목양신문(검색일, 2013. 10. 27.)